

[보도자료]

한국오가는, 여성건강 의제와 제언 담은 매거진 ‘보이스’ 발간

- 의료 전문가, 비영리단체, 공공소통 전문가, 작가 등 여성건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담아
- 여성 생애주기에서 주요 현황과 제언 공유... 여성건강 증진 위한 사회적 논의 확산 및 협력 도모 기대

서울, 2023년 9월 14일 – 한국오가는(대표 김소은)이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주요 건강 현황을 전하며 환경적 개선과 사회적 협력 지점을 제시하는 여성건강 매거진 ‘보이스(Voice)’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이스 매거진은 한국오가는이 출범 후 여성건강 분야의 미충족 수요를 위해 지속해 온 청취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생생한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제언, 환경적 개선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들을 나누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변화하는 피임, 임신과 출산, 난임, 폐경 시기에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 조명했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건강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밀접히 연계된 만큼 여성건강 증진의 기저를 이루는 인구보건복지, 성형평성, 성재생산건강관리 등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도 담았다. 보이스 매거진은 비정기 간행물로, 한국오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먼저, 매거진에는 의료 전문가와 비영리단체, 공공소통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성건강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의견을 전했다. 공공소통연구소 이종혁 소장(현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 여성건강과 성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소통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제언했으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명화 협회장과 이유정 사무국장은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저출생에 얽힌 사회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난임 전문 감자와 눈사람 여성 의원의 류상우 원장은 난임 환자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전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대한폐경학회 김미란 회장(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여성들이 폐경 이행기에 들어가며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은 무엇인지 강조했다.

이에 더해 매거진에는 실제로 난임과 폐경을 겪은 작가들의 생생하고 진솔한 경험담도 담겼다. 3040 난임 여성들의 연대를 그린 장편소설 「헬로 베이비」의 저자 김의경 작가는 난임을 겪으며 직접 느낀 어려움과 심리적 변화를 공유했으며, 폐경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에세이 「요즘 언니들의 갱년기」 저자 김도희 작가는 폐경 이행기에서 겪는 어려움과 폐경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화돼야 하는 이유를 전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오가는이 전 세계 여성건강 전문가로부터 청취한 여성건강 핵심 의료 과제

보고서가 실렸으며, 한국오가논의 온라인 담론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국내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고민과 개선 요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오가논 CEO 케빈 알리(Kevin Ali)는 “여성건강 증진은 더 건강하고 회복탄력성과 성형평성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하다. 오가논은 출범 후 여성건강에 존재하는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번 보이스 매거진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여성건강 분야에 필요한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앞으로 여성건강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오가논 김소은 대표는 “여성건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 민간기업 등 여러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목소리,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보이스 매거진이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성건강 증진에 큰 시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목소리가 닿아 여성건강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오가논은 지난 2021년 6월 출범 이후 피임, 난임, 임신·출산, 폐경을 포함한 여성건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오며 여성건강 분야에서의 미충족 수요 파악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작년 3월에는 여성건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와 온라인 데이터 분석 툴인 소셜리스닝을 통한 국내 여성들의 생각과 온라인상의 담론에 대한 청취 결과를 소개했으며, 지난 12월에는 청소년 성교육의 현실과 바람직한 성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들을 자사 홈페이지와 공식 링크드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모든 여성의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다는 비전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오가는 CEO 케빈 알리(가운데), 한국오가는 김소은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보이스 매거진에 함께한 한국오가는 임직원들이 매거진 발간을 기념하고 있다.



한국오가는 보이스 매거진 표지